

초라한 족보에 담긴 위대한 은혜



본문 출애굽기 6:14-30 예배 유튜브 QR / 주소

유튜브 <https://vo.la/aLoyWZd>



오늘의 한 문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화려한 자격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고, 시곗바늘마저 멈춰버린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뜻대로 풀리지 않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내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며 주저앉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모세도 그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바로는 철저히 외면하고 백성들은 독설을 뿜어냅니다. 스스로를 실패자라 자책하며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갑자기 이스라엘의 족보를 길게 펼쳐 보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처럼 흠집투성이에 실패한 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화려한 자격이 아니라,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내 눈에는 출애굽의 역사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 1초도 멈춘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웅장한 선언입니다.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완전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실패한 인간들의 족보 안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흠집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차가운 평가나 나의 형편없는 이력서에 갇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를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인생이 멈춰 섰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막막한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려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

말씀 관찰

- 1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 바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 6:30)
- 2 하나님은 스스로를 실패자라 여기는 자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 단호하게 확증하십니까? (출 6:26-27)

삶의 적용

- 1 내 인생이 멈춘 것 같고 막막해 보일 때, 나를 쉽게 좌절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드는 내 안의 '초라한 핑계'는 무엇입니까?
- 2 세상의 차가운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나의 형편없는 조건과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심을 믿고,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